

정책연구 2004-17

제주형 일촌일품 마을가꾸기 1

천혜의 경관과 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전통 어촌·생태마을 비양도의
발전 방향

2004. 12

제주발전연구원

발 간 사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제주’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 한라산, 오름, 돌담, 해녀, 중산간의 경관처럼 유형의 것에서부터 그와 관련되어지는 무형의 것까지 우리의 생활 및 환경과 관련된 요소마다 제주적인, 제주다운 멋과 맛이 들어있어 무수한 것들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제주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누구나 선뜻 어느 곳이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제주의 원풍경(原風景)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면서 그 곳에는 대신 전형적인 서구식 도시 형태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길모습의 변화가 비단 형태의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과 일상생활 그리고 문화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원풍경을 떠올리며 그 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아련하게나마 기쁨을 맛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기억 속의 원풍경과 비슷한 곳을 마주치게 되면 이러한 기쁨은 평온함과 아늑함으로 바뀌면서 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반문을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원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질적으로 변하여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만 하면 그만인가. 그리고 그 원모습을 보전하는 일은 구시대적이며 의미 없는 일인가. 라는 점에 대답을 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화산섬 제주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그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곳, 삼다삼무

의 제주정신과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면 그곳은 앞으로 제주문화의 보고이자 제주다운 관광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곳이 있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며 시급합니다.

본 연구는 그 대상지로 비양도를 선정하였습니다. 비양도는 그 규모나 주민 수를 살펴보면 매우 작고 보잘 것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작고 보잘 것 없는 섬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섬에서 면면히 보존되고 있는 우리의 전통과 향토성을 살펴본다면 향후 제주도 차원에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비양도를 통하여 제주의 전통문화가 보존되면서 계승되어 현세대는 물론 후세대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기에 제시하는 내용은 연구자의 소견에 불과하며 당위성을 지닌 공적차원의 논의가 아님을 밝힙니다.

2004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고 부 언

< 목 차 >

I.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1
2. 연구 목적	2
3. 대상 마을의 선정	3
II. 개발여건분석	7
1. 입지여건 분석	7
1) 지리적 위치 및 면적	7
2) 접근성	8
2. 자연·인문환경 분석	9
1) 자연환경	9
(1) 기상 및 기후	9
(2) 지형 및 지질	11
2) 동·식물상	13
(1) 식물상	14
(2) 동물상	16
3. 인문·사회환경	19
1) 인구 및 세대	19
2) 토지이용현황	21

3) 지역경제현황	21
4) 교통체계현황	22
4. 비양도의 자원 분석	23
1) 자연자원	23
(1) 비양봉	23
(2) 애기업은돌과 기암괴석	24
(3) 펄랑물	25
(4) 개 창	27
(5) 너부배원	28
(6) 족은원	28
(7) 황금어장과 바다산호	29
2) 역사·문화자원	29
(1) 전 설	29
(2) 전통신앙	30
3) 공공시설현황	32
5. 관련계획 및 법규	35
1) 관련계획	35
(1) 한림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	35
2) 관련 법규	38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38
(2) 북제주군 도시계획조례	41
(3) 북제주군환경보전기본조례	41
(4) 농어촌정비법	42

6. 종합분석	43
Ⅲ. 기본구상	47
1. 비양도의 발전목표 설정	47
1) 목표 설정의 전제	47
2) 비양도의 SWOT 분석	48
3) 비양도의 발전목표 설정	51
2. 비양도의 발전방향	52
1) 비양도의 전통 어촌·생태마을, 비양도	52
2) 제주다운 자연경관의 보전	53
3) 제주의 전통 문화·생활상 보전	55
4) 생태마을 조성으로 경쟁력 확보	56
5)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하는 관광개발	58
6) 체계적 보전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	59
Ⅳ. 정책제언	60
Ⅴ. 국내·외 사례 및 참고 자료	61
1. 국내사례	61
1) 강화도 생태학습장	61
2) 전라남도 함평 생태체험학교	62
2. 해외사례	63

1) 후세에 남길 오구니(小國)의 풍경	63
2) 일본 시즈오카현(靜岡縣) 아타미시(熱海市) 하쓰시마(初島)의 리조 트호텔 및 어항 건설	66
3) 노르웨이 로포텐 섬의 어촌관광개발 사례	71
3. 참고 자료	75

<표목차>

<표 2-1> 기상 개황	10
<표 2-2> 비양도의 세대 및 인구현황	20
<표 2-3> 비양도의 연령별 인구분포현황(2004년말 기준)	20
<표 2-4> 비양리 종합분석표	46
<표 3-1> 비양도의 SWOT 분석행렬표	50

[그림목차]

[그림 2-1] 위치도	7
[그림 2-2] 연도별 강수량추이.	10
[그림 3-1] 비양도의 발전목표	51

[사진목차]

[사진 2-1] 사진 비양도의 전경	8
[사진 2-2] 비양도 도항선	9
[사진 2-3] 비양봉 전경 1	12
[사진 2-4] 비양봉 전경 2	12
[사진 2-5] 비양리 기암괴석	12
[사진 2-6] 해녀콩	13
[사진 2-7] 황근	13
[사진 2-8] 비양봉 정상에 있는 비양도 등대	15
[사진 2-9] 비양봉에 방목하는 염소	15

[사진 2-10] 남측 분화구내 고사된 소나무	16
[사진 2-11] 비양도 곤충들	16
[사진 2-12] 새갈매기	17
[사진 2-13] 쇠백로	17
[사진 2-14] 비양도의 조류	18
[사진 2-15] 도로에 전시하고 있는 기암들	25
[사진 2-16] 팔랑연못	26
[사진 2-17] 개창	27
[사진 2-18] 비양분교	32
[사진 2-19] 비양보건진료소	33
[사진 2-20] 비양리사무소	33
[사진 2-21] 비양리 한국전력지소	34
[사진 2-22] 폐기물 소각처리장	34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의 관광 · 휴양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음.
- 제주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 · 경제적 발전의 실현과 무한경쟁 시대에 제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임.
- 제주의 경쟁력 확보는 광역단위, 마을 단위, 개인단위의 경쟁력 확보와 연계되어야 하며, 마을단위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함.
- 마을 단위의 발전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바탕을 두고,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음.
- 제주도는 과거 30여년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국내 제1의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반면에 제주다운 모습, 문화 등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음.
- 예를 들면, 제주의 경관을 형성하는 대표적 자원인 오름이 자연적 · 인위적 요인에 의해 그 모습이 변화되고 있음. 전통초가의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그 대신에 제주다움을 느낄 수 없는 건물과 가옥 등이 자리 잡고 있음. 뿐만 아니라 돌담으로 둘러싸인 포구의 고유한 모습, 원담, 돌담과 마을 가로 및 가옥과의 조화로움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기억속의 자원으로 잊혀져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제주고유의 제주다운 모습을 영원히 보전함으로써 전통 경관 · 문화의 전승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자원으로

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 또한, 제주의 농어촌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사회여건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지만, 산업사회 이후 2, 3차 산업의 성장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상대적인 빈곤감뿐만 아니라 도 · 농간, 산업간 편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탈농업, 탈어업 현상이 전개되고 있음.
- 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복지 및 문화시설의 편중으로 교육, 의료, 문화, 주택, 상 · 하수도 등 생활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농어촌 지역은 더욱 살기 어려운 곳으로 전락되고 있음.
-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계획에는 해당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에 바탕을 두고 접근하기 보다는 도시화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농촌다움도 도시다움도 없이, 결국 해당지역의 특성이나 정체성마저 상실한 채 발전의 한계를 안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상의 관점을 고려하여 제주다운 경관과 문화를 보전하는 마을, 제주고유의 농촌 또는 어촌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 마을 활성화의 출발을 마을이 지니고 있는 고유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마을,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제주형 1촌 1품 마을가꾸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제주의 원지형, 경관과 문화를 잘 보전하고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생태마을을 구상함. 생태마을은 공동체 운동의 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생태적 지역공동체 측면에서 상호 협동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 해당마을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마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등 마을단위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함.
- 주민주도의 마을사랑 운동인 일촌일품 가꾸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3. 대상 마을의 선정

- 대상 마을 :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리 (총 면적 0.517km²)
- 선정 배경
 - 화산섬 제주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비양도
 - 비양도는 기록에 의하면 1002년 고려 목종(穆宗) 5년에 산이 사공(四空)으로 나뉘고 화수(火水)가 용출하여 5개월 만에 끝났다는 기록이 있음.
 - 비양도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생화산인 일운회성의 단성화산으로서, 동서간 거리가 1,020m, 남북간 거리가 1,130m인 원형의 화산체로서 섬 중앙부에 2개의 분화구와 함께 해발 114m의 비양봉이 솟아 있음.
 - 비양도는 용암 분출에 의해 형성된 비양봉 조면현무암과 분석 분출에 의해 형성된 비양봉 분석구로 구성되어 있고, 호니토(hornito)와 거대한 화산탄, 스코리아, 집괴암, 용암동굴 등이 분포하고 있음.
 - ‘삼다삼무’ 제주의 고유한 특징이 잘 남아있는 비양도
 - 비양도는 섬속의 섬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현재까지도 외부와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으로 제주의 삼다삼무(三多三無)의 특징

이 잘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임

- 비양도의 인구현황과 관련하여 「제주도 주민등록인구통계 현황」에 의하면 전체 거주인구 169중 남자 82명, 여자 87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상시 거주하는 90명을 대상으로 할 때 남자 28명, 여자 62명으로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곳임.
- 비양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여자의 경우 대부분 해산물을 채취하고, 남자의 경우 소형어선을 이용한 어로활동에 종사하고 있어 전통적인 제주어촌 주민들의 생활원형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음.
- 비양도가 화산분출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용암괴석이나 바위가 많아 바닷가와 연해 있는 수역과 육역에 많은 돌들이 있어, 돌이 많은 제주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음. 관광객을 위하여 기이하게 생긴 돌들을 도로변에 전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집에도 수석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 비양도에는 최근에 건축된 건물 등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문이 거의 없음. 지역주민과의 오래된 관계성 등으로 인하여 이웃과의 왕래가 많고 공동체 의식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남아 있어 도둑도 거지도 없는 삼무의 마을로 남아 있음.

• 관광지로서의 비양도

- 비양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연간 2만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으며, 당일 방문하는 소그룹 단위의 관광객¹⁾과 낚시객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특히 하절기에는 비양도에서 1박하는 관광객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최근 SBS “봄날” 드라마 촬영지로 매스컴에

1) 비양도를 찾는 소그룹 단위의 관광객은 일반 단체 관광객을 포함하여, 회사 또는 단체 모임행사를 위해 찾는 경우가 많음.

널리 알려지고 있어 더 많은 관광객이 비양도를 찾을 것으로 전망
됨.

- 현재 비양도를 찾는 관광객은 섬속의 섬이라는 경이로움을 만끽하
려는 관광객, 제주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관광객, 바다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 관광자원은 비양봉,
펼랑못, 비양도 일주, 기암괴석 등으로 주로 여름철에 관광객이 집
중하는 특징을 보임.
- 비양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관광편의 시설의 부족, 볼거리 부족, 제
한된 공간 등의 이유로 비양도에 체류하는 시간이 매우 짧은 편이
고,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부족으
로 1박 일정으로 방문한 관광객들도 서둘러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편임.

• 생태마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비양도

- 섬속의 섬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비양봉 일대가 개발이 용이하지 않는 경관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비양도의 원모습을 저해하는 개발행위는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대다수 주민들이 어로 활동에 종사하고 있어 기존 경작지도 그대
로 방치하는 등 토지이용 변화가 거의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제주의 그 어느 마을보다도 제주의 전통적인 모습과 생태
환경이 잘 보전된 전통적인 생태마을에 해당됨.
-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생태마을의 정의」에서 보더라도, 비양
도는 생태마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① 이웃과 쉽게 가까워지고 쉽게 조직화되며, 자동차와는 독립된 경계
와 경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규모 (O. Egeberg) : 비양도에는 작업

용 차량 1대가 있을 뿐이며,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도보로 관광하고 있는 실정임.

- ② 생태마을은 마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곳임. 왜냐하면 마을은 살기 위한 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장소이기 때문임. 마을은 노동과 놀이, 탄생과 죽음,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축하, 모든 건강한 삶을 위한 장소 (T. Sima) : 섬이라는 특수성외에 오랫동안 이웃으로 교류하면서 마을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음.
- ③ 자연환경에 근거하여 조화로운 인간 활동이 보장되는 것으로써 인간적 규모²⁾와 최대한의 특징을 지닌 정주체계이며, 인간계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불명확한 미래에 지속성을 유지함 (C. Reid) : 비양도 주민의 주요 소득원은 자연자원인 해산물 채취와 어획 등 수산업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으며, 지속가능한 자원생산체계가 유지되는 한 현재의 삶의 모습이 지속될 것임.
- ④ 경제, 사회 그리고 삶의 질의 제고와 갈등이 없는 생활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인간적 규모의 지속가능한 주거체계임. 주거 체계는 도보와 자전거로 인접 가능한 규모의 자족적인 지역공동체인 동시에 생계, 여가와 시민활동이 보장된 지역공동체 규모이어야 함. 그리고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은 친구, 이웃,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복원시키면서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마을(L. Arkin) : 비양도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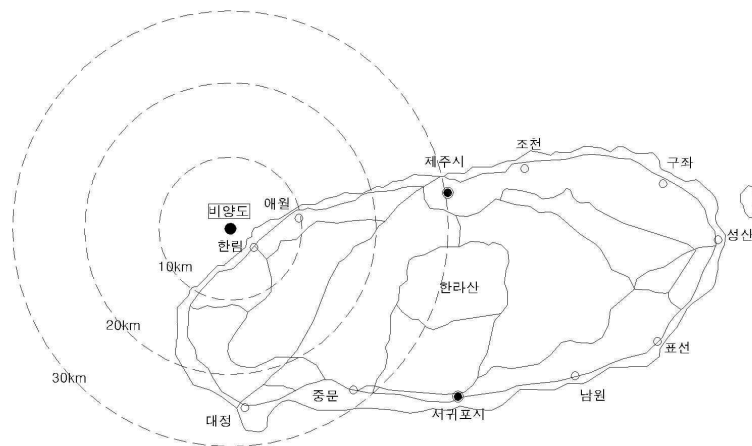
2) 인간적 규모 : 자연속에서 인간이 머무를 수 있는 용량을 의미함. 즉 자연환경의 조건에 비하여 인간 집단의 규모가 크다면 환경용량을 초과하여 결국은 환경에 피해를 주기 때문임. 그러나 생태마을은 자연환경용량을 최대한 고려한 정주체계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소도 충분히 고려함.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즈의 적정 규모는 약 2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는 노동, 여가, 건축, 재활용체계 등을 고려한 정주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여기서 크리스탈 워터즈는 호주 퀸즈랜드 주도인 브리즈번 북서쪽에 100km 떨어진 팰라니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이곳에는 260ha 정도의 규모에 83가구, 200여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전체면적의 20%는 대지로, 나머지 80%는 지속가능한 농업, 숲과 여가장소와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음.

II. 개발여건분석

1. 입지여건 분석

1) 지리적 위치 및 면적

- 비양도는 행정구역상으로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리에 속하며, 지리적으로는 북위 $33^{\circ}24'24''$, 동경 $126^{\circ}13'47''$ 에 위치함.
- 비양도는 한림항으로 부터는 북서쪽으로 3.5km, 협재리에서 북쪽으로 1.8km정도 떨어져 위치해 있으며 한림읍의 유일한 도서임.
- 비양도는 면적 0.517km^2 , 동서간 길이 1,020m, 남북간 길이 1,130m의 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음.
- 비양도는 우리나라 유인도 705개중 394번째 큰 섬이며, 섬중앙에 해발 114.1m의 비양봉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는 3.5km에 이르고 있음.



[그림2-1] 위치도



[사진 2-1] 사진 비양도의 전경

2) 접근성

- 비양도는 제주도 북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국도12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여 한림항에서 진입이 가능함.
- 제주시에서는 서쪽으로 25km지점에 있으며, 서귀포시에서는 북쪽으로 30km 지점에 있음.
- 현재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은 46명 정원(19톤)의 비양호로 1998년부터 취항하고 있음. 이전까지는 정원 13명(13톤)의 한양호가 1986년부터 비양호가 취항하기 전까지 취항하였음.
- 비양호의 운항횟수는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일 2 ~ 4회를 운항하고 있고, 소요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이용 요금은 일반인 1인 당 편도 900원, 왕복 1500원임.



[사진 2-2] 비양도 도항선

2. 자연·인문환경 분석

1) 자연환경

(1) 기상 및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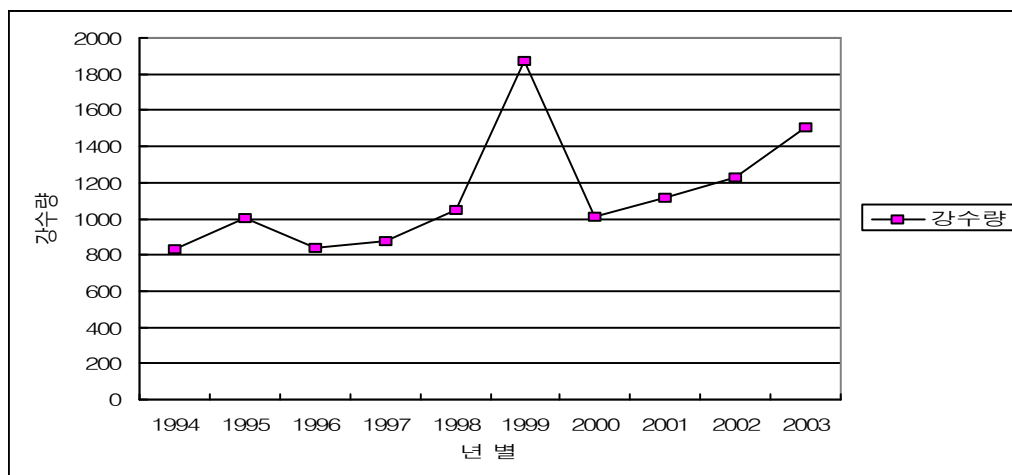
- 비양도의 전반적인 기상 개황은 제주우리나라 최남단 해상에 위치한 섬 지역으로 강한 바람이 많고 일기변화가 잦으나 해상에 의한 기후조절로 기온은 대체로 온화하며 강우량이 많은 다우 지대로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음
- 비양도의 기상 및 기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제주지방기상청 고산관측소에서 관측한 제주 기상자료를 <표 1-1>에 정리하였음

〈표 2-1〉 기상 개황

구분 년별	기온(℃)			강수량 (mm)	상대습도 (%)	일조시간 (hr)	바람(m/sec)	
	평균	최고	최저				평균풍속	최대풍속
1994	16.1	33.1	-0.3	834.3	77	2,296.2	7.1	23.2
1995	15.3	31.4	0.0	1,003.0	75	2,082.6	7.3	23.7
1996	15.3	33.1	-1.5	837.4	75	1,995.9	6.9	27.3
1997	15.8	31.5	-0.8	875.1	74	2,107.7	7.8	29.5
1998	16.3	32.1	-2.5	1,050.4	81	2,035.9	7.1	26.3
1999	15.4	30.1	-1.3	1,874.5	78	1,980.9	7.5	28.8
2000	15.1	32.7	-1.4	1,013.6	73	2,083.7	7.2	32.2
2001	15.1	32.7	-1.4	1,113.7	72	2,023.1	7.4	31.7
2002	15.3	31.8	0.9	1,225.8	74	1,821.2	7.7	28.0
2003	15.3	31.6	-2.6	1,503.0	76	1,756.3	7.5	21.2
평 균	15.5	32.0	-1.1	1,133.1	75	2,018.4	7.4	27.2

자료: 제주지방기상청 고산관측소 자료임.

-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기온은 15.5℃, 강수량 1,113.1mm, 평균상대습도 75%, 연평균일조시간 2,018.4시간, 연평균풍속 7.4m/sec로 나타남
- 특히 강수량의 경우 연도별 편차가 심하여 조사기간(1994~2003년) 동안 최대 강수량은 2003년 1,503.0mm이고, 최소강수량은 1994년 834.3mm이었음



[그림 2-2] 연도별 강수량추이.

(2) 지형 및 지질

- 비양도는 조선 중종 25년(1530년)에 지어진 동국여지승람 제38권에 서산(瑞山)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음. 여기에는 ‘고려 목종 5년(1002년) 6월에 산이 바다 한가운데서 솟아나와 태학박사 전공지를 보내 살펴보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 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원추형의 분석구(cinder cone)인 비양봉의 높이는 114.1m이며, 서북~남서방향의 아치형 능선을 중심으로 동북사면이 남서사면보다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음. 비양봉에는 2개의 분화구가 있는데 360여개의 오름을 자랑하는 제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형태로 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비양도에서는 호니토(hornito)와 거대한 화산탄, 스코리아, 집과암, 용암동굴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고구마 모양의 커다란 화산탄이 해변에 집단을 이루면서 분포하고 있어 화산지형을 소개하기 위한 자연박물관과도 같음.
- 선착장에서 동쪽 해안 500m 지점에는 마그마(용암)에 있던 휘발성분이 폭발하여 마그마 물질이 화구 주변에 쌓여 높은 굴뚝 모양을 하고 있는 화산체의 호니토가 존재함.
- 분석구의 외곽부에 해당하는 분석층이 층리를 갖고 도로변에 분포하고 있음.



[사진 2-3] 비양봉 전경 1



[사진 2-4] 비양봉 전경 2



[사진2-5] 비양리 기암괴석

2) 동·식물상

(1) 식물상

- 나카이(中井, 1914)는 「濟州道竝莞島植物調査報告書」에서 비양도의 식물목록을 72종류라고 기술하고 있음.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2003)에서 조사한 「비양도학술조사보고서」에는 285분류군임을 확인·발표하였으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³⁾.
 - 비양도에는 양호한 산림식생은 없으나 1999년도에 발생한 산불로 비양봉 남측 능선은 산화되었음
 - 경작지의 잡초식물, 분화구 내측의 일부 산림식생요소, 초지식물, 해안 건조식물 및 해안 습지식물, 본토와 왕래 등에 의한 다양한 입지에 의하여 식물의 총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임.
 - 비양도의 식물 중 주요 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비양봉 북측 분화구 내측에 약 100m²의 면적에 순군락을 이루고 있는 비양나무⁴⁾를 비롯하여 황근, 해녀콩, 남가새 등이 있음.



[사진 2-6] 해녀콩



[사진 2-7] 황근

3) 양영환, 비양도의 식물상 연구, 「비양도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3.

4) 비양나무는 현재까지 알려진 자생지로는 비양도가 유일한 곳임(김문홍, 1985, 제주도의 관속식물상)

- 비양도의 저지대에는 대부분이 경작지⁵⁾이고 분화구 상부는 떠가 우점하는 2차 초지와 곰솔의 조림지로 이루어짐.
- 비양도에는 한때 대나무⁶⁾가 많아 죽순이 많이 생산되었으나 여러 차례의 화재로 모두 타버린 실정임.
- 비양도의 분화구 안쪽과 능선에 관속식물 56과 150속 191종류가 분포하고 있음.
- 비양도 생성 역사가 짧은 화산도로서 토양의 발달이 덜 되었으며 다채로운 종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곳에서 자라는 양치식물은 봉의 꼬리, 도깨비고비, 곰비늘고사리, 꼬리고사리, 돌담고사리, 콩짜개덩굴 등 6종이고, 상록활엽수는 남오미자, 까마귀쪽나무, 사철나무, 보리장나무, 보리밥나무, 송악, 마삭줄 등 7종임.
- 2004년말 본 연구진이 현장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음.
- 비양봉 정상을 오르는 산책로 개설 이후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상에 있는 등대 주변의 식생이 크게 훼손되어 표토층이 드러나 강우시 유출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현재 방목하고 있는 염소 등에 의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5) 연구진이 2004년 말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거 경작지로 이용되던 대부분의 경작지가 현재는 별다른 농사를 짓지 않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잡초와 떠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음.

6) 비양도의 대나무 숲 또한 2004년 현장조사에 의하면 산능선 여기저기에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대나무 숲의 확장이 기존 식생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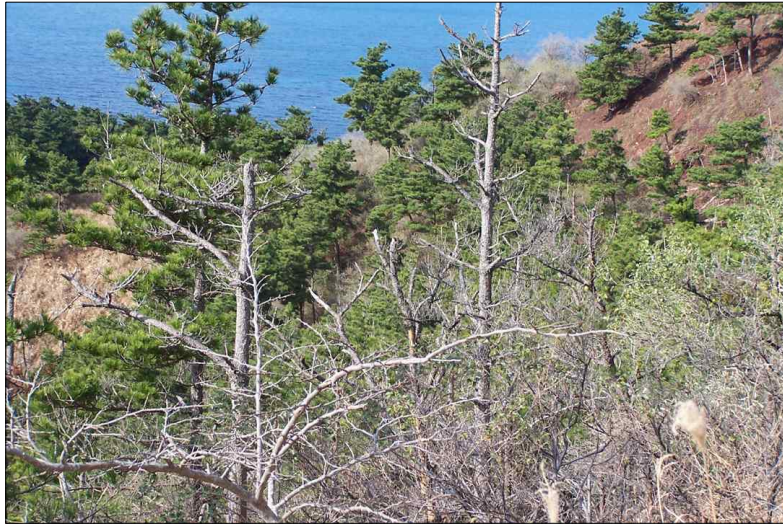


[사진 2-8] 비양봉 정상에 있는 비양도 등대



[사진 2-9] 비양봉에 방목하는 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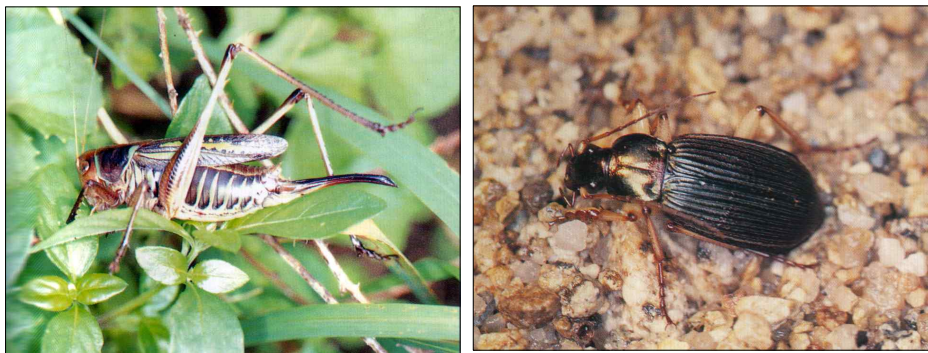
- 남측 분화구의 내측 사면에는 소나무 군락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소나무들이 집단으로 고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진 2-10] 남측 분화구내 고사된 소나무

(2) 동물상

- 비양도의 곤충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⁷⁾
 - 제주도에 분포하는 곤충수의 약 6.7%를 차지할 정도로 곤충의 다양성이 높으며, 총 총 15목 83과 219종이 분포하고 있음.
 - 주로 분포하는 곤충류는 벌, 딱정벌레, 파리, 노린재, 나비, 메뚜기, 매미, 잠자리 등이며, 이밖에도 돌좀, 하루살이, 바퀴, 사마귀, 강도래, 집게벌레 등도 분포하고 있음.



[사진 2-11] 비양도 곤충들

7) 정세호, 비양도의 곤충상, 「비양도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3.

- 농작물의 재배 또는 도로 시설 등 사람의 간섭이 비교적 덜 받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음.
- 비양도의 조류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⁸⁾.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6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1회 최대 관찰계수를 기준으로 51종 1,249개체가 관찰됨
 - 서식하는 주요 조류를 이동형으로 보면 텃새 16종, 겨울철새 19종, 여름철새 8종, 나그네새 8종이 도래함.
 - 희귀종으로는 새매(천연기념물 323호), 매, 황조롱이 외에 환경부 지정 보호조류인 물수리, 말뚝가리 등도 관찰됨.
 - 조류의 번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비양봉 분화구내의 일부 산림공간, 초지군락, 코끼리 바위, 펄낭연못 및 인가 주변이며, 비양도에서 번식이 가능한 종은 꿩, 멧비둘기, 제비, 직박구리, 때까치, 바다직박구리, 휘파람새, 방울새, 참새 등임.
 - 해안 갯바위 및 해안 조간대에는 가마우지, 백로류, 갈매기류, 도요류, 물총새, 할미새류 등이 먹이를 찾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음.



[사진2-12] 새갈매기



[사진2-13] 왜백로

8) 김완병, 비양도의 조류상, 「비양도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3.

- 해상에는 큰회색머리아비, 가마우지, 뿔논병아리, 갈매기류, 바다쇠오리 등이 관찰됨.
- 비양도는 제주 본섬과 가깝게 위치하여 비양봉 식생과 해안조간대가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야생조류의 좋은 서식지가 되고 있음.
- 펄낭연못과 연안바다는 겨울철새들의 월동서식지로 이용되고 있음.
- 야생조류의 분포에 있어서 가축들과 들고양이들이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음.



[사진 2-14] 비양도의 조류

3. 인문 · 사회환경

1) 인구 및 세대

- 비양도에는 조선조 고종 13년(1876년)에 서씨(徐氏)가 제일 먼저 입주하였다고도 하고, 그보다 앞서 본향당(本鄕堂)을 가지고 온 김씨(金氏)할망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음. 다만 고려말 해상 방어를 위해 망수를 배치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사람의 출입이 있었던 것으로 유추함. 그러나 일부의 주장은 130여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인도로서 비양도 일대는 대나무가 무성하였고 한림읍 5개리에서 공동으로 관리하였다고 함, 그 후 협재리 거주 윤씨가 처음으로 비양도를 찾아와 정주하면서 동남쪽의 비탈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초원지대에는 우마를 사육하였다고 함. 부업으로 비양도 일대에서 고기를 잡아 경제적으로 윤택해지자 각처에서 사람이 모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함.⁹⁾
- 비양도에는 2004년 12월 31일 주민등록통계에 의하면 62세대 총 153명으로 한림읍 전체 인구의 0.8%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인구증감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성씨분포를 살펴보면 김씨 11가구, 윤씨 8가구, 고씨 7가구, 이씨 6가구, 장씨 5가구, 공씨 4가구, 나머지가 차씨, 박씨, 임씨, 강씨(姜氏), 손씨, 현씨, 문씨, 서씨 강씨(康氏)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함.

9) 김동섭, 비양도의 민속문화, 「비양도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3.

〈표 2-2〉 비양도의 세대 및 인구현황

구 분	세 대	인구수			비 고
		계	남	여	
2001	60	162	74	88	
2002	61	162	77	85	
2003	62	169	82	87	
2004	63	153	75	78	

자료: 제주도 주민등록인구통계 현황. 2001, 2002, 2003

- 2004년말 현재 주민등록인구통계상의 연령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1~10세가 8명, 11~20세가 20명, 21~ 40세가 39명, 41~60세가 48명, 60세 이상이 38명으로 중·장년층의 인구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비양도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약 90명 정도로 60세 이상 인구가 45명 정도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아울러 남녀의 인구 비율을 보더라도 28 : 62로 여성의 인구가 월등하게 많으며,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에 취학하는 아동은 4명, 미취학 아동은 2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2-3〉 비양도의 연령별 인구분포현황(2004년말 기준)

연 령	인구수			비 고
	계	남	여	
1~10세	8	6	2	
11~20세	20	11	9	
21~30세	23	13	10	
31~40세	16	10	6	
41~50세	26	15	11	
51~60세	22	12	10	
61~70세	21	7	14	
71~80세	12	1	11	
81~90세	5	-	5	
계	153	75	78	

자료: 한림읍 주민등록인구통계, 2004

- 비양도내에 주민자치기구로는 리장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위원, 반장으로 구성된 기구 외에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잠수회와 133명을 회원으로 하는 어촌계가 있음.

2) 토지이용현황

- 비양도의 토지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포구가 있는 속칭 앞개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거지역 뒤편으로 약 7ha에 이르는 경작지가 분포되어 있음.
- 최근, 대부분의 경작지에는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극히 일부지역에만 유채, 마늘 고구마 등 채소류를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조류 또는 염소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물을 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비양봉 산책로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기존의 초지뿐만 아니라 방치된 경작지의 초지 등으로 인하여 띠와 억새 등 자연풍광이 지배적이어서 비양도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음.
- 따라서 비양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식과 부재료는 인근 한림지역 등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지역경제현황

- 과거에는 주산업이 농업과 어업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임.
- 비양리의 어업은 소형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 어획물은 옥돔, 갈치, 오징어 등임.
- 비양도에는 아직까지도 여성인력의 90% 정도가 제주도의 전통적인 잠

수(潛嫂)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로 소라, 톳, 우뚝가사리, 천각, 해삼, 전복, 오분자기 등을 채취하고 있고, 가게 수입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일부 주민들이 상업, 민박업, 계절 음식점 등을 운영하여 마을 소득을 올리고 있음.

4) 교통체계현황

- 비양도로 가기 위해 한림항이나 협재리에서 배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항선은 한림항에서 하루 왕복 2회를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이나, 여름철 등 성수기에는 도항선을 4회 또는 그 이상 운항하고 있음.
- 비양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항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을 이용하여 한림읍이나 기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마을내에서는 특별한 교통수단은 없으며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임.
- 비양도 선착장은 어선이 정박하는 포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포구내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임.
- 마을내 차량은 1톤 트럭 1대, 경운기 1대가 있는데, 주로 작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양도를 생태마을로 조성할 경우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4. 비양도의 자원 분석

1) 자연자원

(1) 비양봉

- 비양봉은 비양도의 섬 중앙에 대형분화구와 그 옆에 소형 분화구가 있으며, 대형분화구 사면에 낮고 작은 2개의 분화구가 딸려 있음¹⁰⁾.
- 대형 분화구는 속칭 ‘큰암페’라고 하며, 북쪽에 있는 소형 분화구는 ‘족은 암페’라고 함.
- 대형분화구는 깊이가 80m로 비교적 깊은 깔데기형 분화구이며, 족은 암페는 깊이가 26.5m인 분화구로서 오름이 많은 제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화산체를 이루고 있음.
- 족은암페의 분화구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제주도기념물 제4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비양나무 자생지가 있음.
- 비양봉정상까지는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으며, 정상에서는 협재해수욕장을 비롯하여 한라산과 북제주군 서부지역 오름군을 한눈에 볼 수 있음.
- 비양봉 정상에는 현재 비양도 무인등대가 있으며, 태양광 발전으로 작동되고 있음.
- 비양봉에는 10여년전부터 방사된 흑염소 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보리수나무, 대나무, 억새뿐만 아니라 등대주변에 있는 풀들을 뜯어먹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등대주변에는 염소들이 풀 뿌리까지 파먹고 있어 피복식물 훼손으로 송이층이 드러나는 등 강우시

10) 제주의 오름, 1997, 제주도

토사유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여름철에는 산책로 주변에 염소 배설물에 의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 진드기 등이 번식하는 등 관광객들이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임.

(2) 애기업은돌과 기암괴석

- 애기업은돌은 비양도 북쪽 해안에 위치하며, 용암류 내부의 가스가 분출하면서 만들어 놓은 분기공인 ‘용암굴뚝(lava blister)’¹¹⁾임.
- 애기업은돌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아기를 업은 듯한 여인의 형상을 한 용암석으로 비양도가 한라산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아기 업은 여인이 막아 내다가 돌이 되어버렸다는 전설이 있음.
 - 이곳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치성(致誠)을 드리기도 하고, 이 돌을 처음 보는 사람은 절을 해야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일제시대에 일본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었음.
 - 아주 오랜 옛날 김녕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품질이 좋은 ‘뭍’을 채취하는 작업을 했다고 함. 이곳에서 ‘뭍’을 채취하여 말린 다음 김녕으로 싣고가 팔아 살아가곤 했다고 함. 옛날에는 이곳을 오고 갈 때 태우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와 태중에 아이를 가진 해녀가 물으로 다니기가 불편하여 남편에게 쌀을 가져오라고 했음. 심한 바람이 며칠간이나 계속되어 남편은 돌아올 수 없게 되었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때이므로 쌀을 기다리는 해녀는 굶주림에 지쳐 김녕쪽을 쳐다보다가 죽고 말았다고 함. 그래서 예전에는 ‘망부석’이

11) 김동섭, 비양도의 민속문화, 「비양도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3.

라 했음. 이곳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이 돌을 처음 보는 사람은 절을 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음.¹²⁾

- 북서부의 조간대와 해안노두에는 수증화산 쇄설성 퇴적층, 붉은색 내지 흑색의 스코리아 및 용암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지질구조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
- 해안도로 개설 이후 북동 해안도로 주변에는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위하여 기암을 전시하고 있어 화산섬 비양도의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있음.



[사진 2-15] 도로에 전시하고 있는 기암들

(3) 펄랑물

- 비양봉 동남쪽 기슭에는 갯벌로 되어 있는 속칭 ‘펄낭’이라 불리우는 염습지가 있으며, 여기에는 장어, 게 등이 자라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조

12) 김동섭, 비양도의 민속문화, 『비양도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3.

류들이 먹이를 먹거나 함.

- 예전에는 ‘빨’을 상처난 곳이나 화상(火傷)입은 부위에 덮어씌우면 시원하고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함.
- ‘필랑연못’ 주위에 대한 정비는 2003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목재데크 및 석분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산책로를 개설하여 생태연못을 조성하였는데, 산책로 조성과정에서 황근, 해녀콩 군락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으나 비양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임.
- 마을주민들에 의하면 생태연못 조성과정에서 조류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연못의 물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고, 점차 담수 연못으로 바뀌고 있다고 함.
- 필랑연못 인근에는 야영지가 있어 여름철 관광객들이 야영을 하거나 야유회 등을 즐기기도 함.



[사진 2-16] 필랑연못

(4) 개 창

- 비양리 마을 앞 '구녀'와 '오저부리' 사이에 있으며, '개창'은 선창(船倉)이라는 뜻을 지닌 제주어임.
- 비양도의 '개창'은 조간대 상층에 자리하기 때문에 썰물 때는 그 안으로 배가 드나들 수 없으며, 안쪽 칸살을 '안개창', 바깥을 '밖개창'이라고 구분하기도 함.
- 비양도 주민들은 개창으로 밀려드는 모진 동남풍을 두고 '삼부새'라고 하였으며, 옛날 '삼부새'가 거칠게 일 때는 '안개창'에 배를 들여놓고, 칠줄 따위로 감아 묶어두지 않으면 배가 파손되었다고 함.
- 또 '안개창'은 조간대 상층에 자리하기 때문에 썰물에는 바닥이 드러났으며, 그럴 때는 그 바깥인 '밖개창'에 배를 묶어 두어야 했다고 함.
- 근래에 이르러 '구녀'쪽으로 방파제를 길게 쌓았는데, 그 방파제가 어느 정도 동남풍을 막아주면서부터 '안개창'은 보잘 것 없는 뱃자리가 되어 버렸다고 함.



[사진 2-17] 개창

(5) 너부배원

- '오저부리'와 '낭시끄는 코지' 사이에 있으며, '너부배'라고 하는데 그곳을 '너부배원'이라고 함.
- 마을 주민 공동으로 해안선에 나지막한 돌을 둥그렇게 쌓아놓고 밀물을 따라 들어왔다 썰물에 미쳐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들을 잡는 곳임. 이러한 곳을 원담¹³⁾이라 함.
- 서남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오저부리' 서쪽 후미진 곳에 있으며, 조간대 중층에 긴둥근꼴로 약 60m의 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금은 그 흔적만 보잘 것 없이 남아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음력 2, 3월쯤에 원담을 보수했었다고 함.

(6) 족은원

- 비양도 북쪽 갯가 중 '배덴코지'(또는 '종남머리코지') 서쪽에 있으며 '애기엿은 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음.
- 그 서쪽에 있었던 '큰원'에 견줄 때,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족은원'이라고도 하였음.
- 조간대 중층에 자리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물웅덩이를 이루는 곳이며, 또한 바닥에는 크고 작은 돌멩이가 깔려 있고, 그 바깥으로 30m 안팎의 원담 흔적이 남아 있음.

13) 원담은 제주도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님. 다른 지방에서는 대나무나 갈대를 엮어 담을 세웠지만 돌이 많은 제주에서는 돌담이 주를 이루고 있음. 제주도의 원담은 다른 지방과는 확연하게 다른 특징이 있음. 다른 지방의 원담은 개인 소유이지만 제주도의 원담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소유로 제주도 생업문화의 유산이기도 함. 이곳에서는 원담 바닷잡이를 하려면 무엇보다 물때를 잘 알아야 함. 이곳에서 주로 잡은 것은 멸치, 갈치, 돔류는 물론 해조류까지 채취할 수 있음.

(7) 황금어장과 바다산호

- 비양도 연안은 일찍이 황금어장으로도 유명하며, 특히 옥돔과 갈치의 주산지로도 유명함.
- 비양도 연안은 또한 바다산호로도 유명함.

2) 역사 · 문화자원

(1) 전 설

- 비양도가 생기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음¹⁴⁾.
 - 비양도는 고려시대 중국에서 날아와서 생겼다 함. 중국에 있는 한 오름이 어느 날 갑자기 날아와서 지금의 위치에 앉아있다고 함. 이 때문에 중국에 있던 그 오름이 없다고 함. 날아 떨어진 오름이라는 비양도는 오름이 갑자기 날아와 협재리 앞바다에 들어앉아 바닷속에 있던 모래가 넘쳐 올라서 협재리 해안가를 덮었다고도 함.
 - 해안에 있는 집들이 모래에 덮혀 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함. 지금도 모래밀을 파다보면 사람뼈, 그릇들이 나오고, 아주 부드러운 발흙이 나온다고 함. 또한 비양도 오름이 날아오다 잘못 왔다고 해서 확 돌아 앉으니 그만 그 자리에 멈추게 되었고, 그래서 비양도 오름이 돌아앉은 형체라 함.
 - 하루는 곽지리에 사는 한 아기 뱀 부인이 아침에 물을 길러 바닷가로 나가는데 섬이 곽지리 쪽으로 떠오고 있었다고 함. 그 여인은 섬이 떠오르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 "큰 섬이 떠와져!"하고 외쳤다고 함. 이 외침소리에 곽지리로 떠내려 오던 섬이 돌아나와서 서쪽으로 더 내려가

14) 김동섭, 비양도의 민속문화, 「비양도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3.

협재리 앞바다에 머물러 버렸다고 함.

(2) 전통신앙

① 비양도 포제단¹⁵⁾

- 비양도 속칭 '필랑'이라는 곳에 포제단이 있음. 이곳은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에서 서쪽으로 20여m 떨어진 지점으로 본향당도 이곳에 함께 있음. 대충 다듬은 자연석을 170cm 정도 높이로 쌓아 울타리로 삼고 있음. 그 안의 북쪽 담 가까운 곳에 2m 높이의 암반 무더기가 있음. 이곳에 본향당이 있음. 그 서쪽에 시멘트 제단이 있고 제단 앞에는 비교적 넓은 제장이 마련되어 있음. 제장 바닥 역시 시멘트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포제단임.
- 포제는 20~30년 전에 그만두었다고 함. 제관은 3헌관만 두었다고 함. 주민이 많지 않아 다른 마을처럼 12제관을 두루 갖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임. 재계는 7일 동안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때에 따라 5일 동안 하기도 하고 3일 동안 하기도 함. 제청은 따로 없었고, 제관 각자의 집에서 스스로 정성을 들여 준비하였음. 금줄은 따로 치지 않았음. 제물 준비는 초헌관 집에서 했음. 재물은 돼지 머리 혹은 돼지 한 마리였음. 다른 제물로는 쌀메 2그릇, 조메 2그릇, 생선 등을 올렸음. 포제가 끝나면 그 제물의 일부를 본향당에 올려 제사를 모셨음. 제복은 따로 없었음. 평소 입던 옷을 입고 제사를 지냈음. 이 마을 포제는 유교식으로 지내기도 했지만, 간혹 심방을 불러 무속식으로 지내기도 했었다 고 함.

15) 김동섭, 비양도의 민속문화, 「비양도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3.

② 비양도 술일당

- 비양도에는 술일당 한곳이 있음. 비양도 포구에서 북쪽으로 50여m 떨어진 곳에 속칭 '펼랑'이라고 하는 늪지대가 있고 그 동쪽 20여m 떨어진 곳에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가 있음. '펼랑'과 비양분교 사이에는 높이 2m 가량 되는 암반이 있음. 그 암반 위 우묵한 곳에 당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술일당'이라 함.
- 제단은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규모가 매우 작음. 사철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있으며, 지전, 물색, 명실 등을 걸어 두고 있음. '종남머리 술일한집'을 모신 곳임. 이 신은 비양도 사람들의 생산·물고·호적을 관장한다고 함. 제일은 매 술일(戌日) 곧 개날인데, 이에 따라 개당이라고도 함. 금릉 또는 옹포에서 가지 갈라 온 당이라고도 함. 현재 매인심방은 없으며, 물에서 보살할망이 와서 필요에 따라 비념을 하고 감. 돼지고기도 금기하지 않음. 『무가』에 본풀이가 실려 있음.
- 포제를 행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마을 주민이 많지 않아 제관(祭官)은 3헌관만 두었음. 정성을 7일 동안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때에 따라 5일이나 3일 동안 하기도 함. 제청(祭廳)은 따로 마련된 곳은 없었으며, 제관(祭官)으로 선출된 각자의 집에서 스스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음. 포제는 정월 보름날에 주로 지냈다고 함.
- 해마다 영등굿을 지내는데, 어촌계 공금으로 제비를 담당함. 제의(祭儀)는 '술일당(戌日堂)'이라는 곳에서 열림. 제단(祭壇)은 시멘트로 만들어졌으며, 규모가 매우 작음.
- 사철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삼고 있으며, 지전(紙錢), 물색(物色), 명실(命絲) 등을 걸어 두어 비양도 사람들의 생산(生産)·물고(物故)·호적(戶籍)을 관장함. 당신(堂神)으로 '종남머리 술일한집'을 모심.
- 현재 매인심방은 없으며, 물에서 '보살할망'이 와서 필요에 따라 간략하게 하는 '비념'을 행하기도 함.

3) 공공시설현황

-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 : 비양분교는 교무실과 교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1층 건물, 교사용 관사 1동과 일반 초등학교 운동장의 1/10도 채 안되는 운동장이 있고, 놀이시설 몇 종류가 있음. 여기에는 학생 4명, 교사 2명, 주사 1명이 있음. 비양분교에는 현재, SBS 드라마 ‘봄날’ 드라마 촬영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층 건물 위에 가건물 2층과 운동장에 한켠에도 가건물 한동을 지었음. 그리고 본관 건물 입구에 임시로 ‘비양보건진료소’라는 글이 새겨져 있음.



[사진 2-18] 비양분교

- 경찰초소 : 여기에는 현재 6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으며, 비양도로 입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항관련 업무와 비양도 주변을 경계하고 있음.
- 보건진료소 1개소 : 1명의 진료원이 월~금까지 상시 근무를 하고 있음. 토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진료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급환자 발생하면 어려움이 많다고 주민들은 전하고 있음.



[사진 2-19] 비양보건진료소

- 리사무소 : 사무실 안에는 새마을문고와 함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과 학생, 경찰 초소 대원들이 이용하고 있음.



[사진 2-20] 비양리사무소

- 어촌계 사무소 : 어촌계 회원들이 회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 자가발전소 : 비양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필랑연못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음.



[사진 2-21] 비양리 한국전력지소

○ 폐기물 소각처리장

: 자가발전소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소각하고 있음. 그리고 캔류나 병류 등 재활용쓰레기는 폐기물 소각 처리장 근처에 야적하고 있으며, 한림읍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음.



[사진 2-22] 폐기물 소각처리장

- 오수처리장 : 2004년에 건설되었으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등은 50%정도만 하수관로로 연결되어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음.
- 종교시설 : 교회 1개소, 절 1개소가 있음.
- KT비양도분기국사 : 한국통신에서 운영하는 무인기지국 1개소가 있음.
- CATV 기지국 1개소가 있음.

5. 관련계획 및 법규

1) 관련계획

(1) 한림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

- 한림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서는 한림읍을 '서부권 종합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교류문화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본 계획의 주요 내용 중 비양도와 관련된 내용은 비양도를 자연생태·문화관광마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① 비양도 500년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비양도를 지속가능한 관광, 즉 현세대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차세대를 위해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비양도 자연생태관광마을 조성 프로그램을 수립함.
- 비양도의 전통문화,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현세대에 필요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요인을 충족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함.
- 비양도의 자연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도 그 원형을 보전하는 비양도 500년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지역의 특성과 독창성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함.

② 자연생태·문화관광마을의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여 운영함.

-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연생태마을, 문화관광마을과 연계하여 제주형 자연생태·문화관광 모델을 구축함.
- 자연생태·문화관광마을 조성관련 국제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함.

- ③ 비양도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중심조직으로 「비양도 생태문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다음의 사업을 전개함.
- 환경보전활동 전개 : 마을 주변의 청소,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의 보급 촉진, 비양도 환경보전을 위한 심벌마크 제정 및 보급 활동 등을 전개함.
 - 자연보호사업 : 제주도기념물 제48호인 비양나무를 비롯하여 애기엽은돌, 코끼리 바위 등 화산석 및 화산지형을 체계적으로 보전함.
 -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자연환경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지속가능’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전에 역점을 두는 순환형 지역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 야외박물관의 운영 등 섬 지역 전체를 야외 박물관으로 운영함.
 - 자동차가 없는 섬으로 지정하며, 청정에너지 활용방안을 강구함.
 - 탐방인원을 제한하여, 지역 주민의 안내를 받아 관광 및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함.
- ④ 생태관광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자연생태계 및 문화에 대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안내체계를 수립함
 -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
 - 비양도내에 있는 생태관광자원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함.
 -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를 자연생태·문화관광 센터로 활용하는 등 비양도의 자연, 문화를 체계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실내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함.
- ⑤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정하여 운영함
- 지역주민의 문화와 생활을 존중함
 -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가지고 돌아감

-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음
- 동식물을 소중히 하며, 동식물을 포획하지 아니함. 다만 정해진 곳에서 낚시와 수산물 채취는 허용함.
- 캠프는 정해진 장소에서 하며 모닥불을 피우지 아니함
- 비양봉을 오를 때나 비양도 주변을 산책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코스를 이용함.

⑥ 관광시설 프로그램은 생태관광과 문화관광의 이미지에 맞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입함

- 관광시설물은 가능한 한 자연 생태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
-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존 수목이나 지형과 어울리도록 하며, 부지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
- 자재는 가능하면 환경적으로 위해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태양과 풍력에너지의 사용, 우수의 사용, 자연적 환풍 등 생태적 기술을 활용함.
-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은 편안하고 깨끗하지만 반드시 고급스러울 필요는 없음
- 산책로 등을 조성할 때 야생동물의 번식지 또는 주요 이동경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
- 각 시설물은 현장에서 직접 가공·타설하는 것보다 조립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도록 함.
- 각 시설은 기후조건, 즉 풍향과 일조, 강우, 기온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자연적인 재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함.
- 생태관광을 위한 시설 디자인은 필요한 경우 자연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총체적인 생태적 디자인이 필요함.
- 건물의 처마선은 길게 내어 그늘을 만든다거나 녹음식재를 통해 그늘을 조성하며, 지붕은 우수를 집수할 수 있도록 하며 집수된 우수

는 조경, 허드렛물로 재활용함.

- 보도는 목재데크 또는 자연재료를 사용하며, 지형변형을 최소화함.
- 물, 가스, 전기 등은 계측기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사용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팬이나 조명은 타이머를 사용하여 이용자가 절약함을 느낄 수 있게 함.
-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생물 발효정화조를 사용하고, 발효물은 조경용으로 다시 사용하도록 하며, 폐수는 가능한 한 정수처리를 통해 중수와 오수로 분리 재활용함.

2) 관련 법규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내용중 비양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동법 제27조의 ‘절대보전지역’및 제28조의 ‘상대보전지역’ 등이 해당됨.
 - 비양도의 절대보전지역은 비양봉을 중심으로 사면의 경작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절대보전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 ·도서· 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2.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개벌(開伐)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개축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비양도의 상대보전지역은 비양봉 절대보전지역과 연한 오름 사면 및 해안가 대부분이 상대보전지역으로 있으며, 상대보전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 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축
 3.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에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5.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6.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7.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 ③ 제2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북제주군 도시계획조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조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북제주군환경보전기본조례

- ‘북제주군환경보전기본조례’ 제12조의 ‘자연환경의 보전’에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4.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정비법’ 제31조 3의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농어촌마을의 정비·개발
 3. 농어촌생활환경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의 정비·개발
 4.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
 5.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농공단지 등 소득원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
 6. 농어촌용수 및 배수시설의 정비·개발
 7.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계획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의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에는 ‘농어촌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6. 종합분석

- 비양도는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한림항에서 도항선으로 10여분 거리에 떨어져 있으나, 도항선의 운항횟수가 적기 때문에 접근성이 불량한 편임.
- 도항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상·기후에 따른 해상 상황에 따라 한림항에서 비양도까지의 접근뿐만 아니라 비양도에서 한림항으로 출항하는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그러나 한림항과 비양도간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해상상황이 호전되면, 다른 곳보다 쉽게 입·출항할 수 이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 비양도를 찾는 관광객은 계절에 따른 수요변화가 심하여 동절기보다는 봄·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비양도는 화산섬 제주를 축소라도 한 것처럼 섬중앙에 비양봉을 비롯하여 2개의 분화구, 화산탄, 스코리아, 집괴암, 용암동굴 등 지형·지질적 자원이 집약하여 분포하고 있음.
- 비양도에는 비양나무를 비롯하여 황근, 해녀콩, 남가새 등의 희귀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중산간의 빼어난 경관이라 할 수 있는 초지자원을 지니고 있음.
- 비양도에 자생하는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 제주의 원풍경과 함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비양도에 분포하는 곤충의 종류는 좁은 면적에 비하여 종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 섬전체가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비양도 연안역의 풍부한 수산자원 및 정온한 환경으로 가마우지, 뿔논병아리, 갈매기류, 바다쇠오리 등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조류관찰지역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음.
- 비양도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특성을 볼 때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고, 제주 어촌의 고유한 모습과 문화가 남아있는 제주 전통 어촌 마을의 특징이 잘 보전되어 있음.
- 제주도 연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부분이 청정 수산물이기도 하지만, 비양도 인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자연 그대로의 청정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
- 비양도에는 섬 전체적으로 볼 때 자동차 1대와 경운기 1대만 있어 작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배기가스 등의 영향이 없는 청정하고 정온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시 자연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기도 함.
- 비양도에는 비양봉을 비롯한 자연자원과 비양봉에서 바라보는 비양도 자체의 내부 경관과 협재해수욕장, 제주북서부 지역의 오름군, 한라산 등 제주의 원경을 조망할 수 있는 빼어난 경관자원을 지닌 곳임.
- ‘애기업은돌’ 등 전설과 관련된 요소, 원담 등 어촌 생활상을 간직하고 있는 요소, 제주지역의 전통신앙과 관련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곳임.
- 관광객이 비양도를 방문하였을 때 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풍부한 자연·문화자원과의 의사소통 단절로 일방향 관광이 이루어짐으로써 비양도의 관광품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현 수준의 비양도 관광은 당일 방문형, 단순경관 감상 위주이며 관련업은 민박업, 계절음식업에 주로 치우치고 있음.

- 숙박시설 중 현대적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콘도형 민박은 객실수가 2실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채래식 민가를 민박으로 활용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낙후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함.
- 최근,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생태마을로서의 여건을 충분히 갖춘 곳으로 제주형 생태마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임.
- 비양도 선착장 인근에 있는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는 현대적 건물이나 시설들이 거의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 제주의 고유한 경관, 비양도의 고유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 드라마, 영화 촬영장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음.
- 의료시설은 보건진료소 1곳이며, 진료원 1인이 월-금요일까지는 상주 근무하지만 관광객이 많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사이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음.
- 해안가에 밀려오는 부유성 쓰레기를 비롯하여,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하여 청정한 섬, 비양도의 이미지가 반감되는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 연간 2만여명의 관광객이 비양도를 방문하고 있지만, 관광객 대부분이 필요로 하는 음식물류 등을 직접 들고 오는 경우가 많아 여름철 일부 민박집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지역주민의 소득과는 무관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간의 일체감 형성이 미약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 지역주민에 의한 소규모, 소자본으로서는 쾌적한 숙박시설, 식당 등 관광객이 선호하는 서비스 수준을 맞추기 곤란하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는 무관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자원, 관광시설이나 관광프로그램의 부재로 현재의 상태로는 관광객을 유인할 요소에 한계가 있으며, 주민소득

과 연계시킬 수 있는 요인도 제한적임.

-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주민 스스로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등 관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주로 선상낚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어선 낚시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다른 지역과 유사한 현대적 의미의 관광시설을 확충할 것인지,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의 생활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대안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것인지는 지역주민, 북제주군을 비롯하여 제주도 전체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2-4〉 비양리 종합분석표

구분	강점요인	약점요인	대응방안
입지 환경	• 공항에서 30분거리 • 도항선 이용 10분거리 • 협재해수욕장, 한림공원 등 주변관광자원 양호	• 1일 2회 도항선 운항 • 기상·기후에 따른 해상 상황에 민간한 영향	• 관광객 예약제도 운영, 탄력적 도항선 운항
자연 환경	• 화산섬 제주의 축소판 • 청정환경 및 풍부한 수산물 • 잘보존된 자연·생태자원 풍부-섬전체가 하나의 자연학습장	• 해안도로, 전주·전선 등 자연환경과 부조화된 시설 • 급경사 지역 과다로 개발가능 부지 협소 • 일부 자연식생 파괴 • 해안지역 부유쓰레기 처리문제 심각	• 생태마을조성으로 대안 관광 상품 개발 •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인공시설 • 현재의 자연·생태환경을 발전의 최고자원으로 활용 • 해안가청소 등 체계적인 연안관리
인문 환경	• 제주고유의 문화 및 생활상 보존	• 고령화 문제 심각	• 전통문화 및 생활상의 체계적 보전
관광 환경	• 생태관광 등 대안관광지로서의 발전잠재력 양호 • 드라마촬영지 등 영상문화의 발전가능성	•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부재 • 지역주민의 관광객 대응태세 미흡	• 대안관광프로그램 개발 • 지역주민의 관광역량 제고

Ⅲ. 기본구상

1. 비양도의 발전목표 설정

1) 목표 설정의 전제

- 비양도의 발전목표 설정은 1차적으로 지역주민의 몫이라 할 수 있지만, 비양도가 지니고 있는 입지환경, 자연환경, 인문환경, 관광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북제주군, 제주도 전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양도의 발전 목표 설정은 제주지역 전체 발전상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양도가 지니고 있는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의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양도의 발전목표를 개발중심에 둘 것인지 아니면 보전목표에 둘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견 수립 절차가 필요함. 본고에서는 공식적인 발전목표 설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전중심에 역점을 두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제안적 성격에 지나지 않음을 미리 밝혀 둠.
- 어떤 형태의 관광개발을 추구하든지 지역주민에게 실익이 귀속될 수 있는 형태의 접근이 필요함.

2) 비양도의 SWOT 분석

- 비양도가 지니고 있는 현재적 가치, 미래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SWOT 분석 결과는 <표 3-1>과 같음.
- 강점 요인
 - 화산섬 제주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 지형·지질학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
 - 삼다삼무의 정신이 잘 보전되어 있고, 주요 경제활동 및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제주의 전통적인 풍습이 많이 남아있는 제주의 전통적인 생활·문화가 잘 보전되어 있음.
 - 제한된 면적에 자연·생태자원의 집적도가 높으며,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제주의 청정환경을 대표할 만큼 주변 환경이 청정함. 특히, 제조업이 전무하며, 비양도내 차량이 화물차 1대, 경운기 1대로 주민의 생활모습 자체도 청정환경 보전과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전신주와 전선, 일부 신축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대적 건물이 주를 이루며, 제주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인공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임.
- 약점 요인
 - 지리적으로 제주 본토와 가까이 있으나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항선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수반됨.
 - 인구 구성상 여성의 비율이 높은 특징외에 고령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여성의 대부분이 잠수업에 종사하고 있어, 가칭 '제주 잠수업 보전지역'의 지정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관광시설과 관광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연간 2만여명이 비양도를 방문하고 있으나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지 못함.
- 비양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으로써 주변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주택과 부조화된 인공시설 등이 들어서고 있어 앞으로 경관보전 문제가 지역의 이슈로 등장할 것임.
-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청정 비양도의 이미지가 저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낚시관광객이 이용하는 밀밥 등으로 인하여 연안환경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기회 요인

- 주 5일제 근무 시행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대하면서 기존 볼거리 위주의 관광에서 체험관광·생태관광·문화관광 등 대안관광을 선호하는 형태로 관광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 중에는 제주만이 간직하고 있는 제주다움을 찾을 수 없다는 견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의 생태, 제주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 도시생활에서 느끼는 바쁨, 복잡함,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일탈하려는 도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통경관과 전통문화의 보전 등을 주제로 하는 제주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관광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초고속 정보화 사회는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섬지역에 대한 관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위협 요인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함께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

으므로, 비양도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투자자의 관심 증대와 지역주민들에 의한 관광개발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비양도에 대한 개발방향 설정이 더욱 시급하게 대두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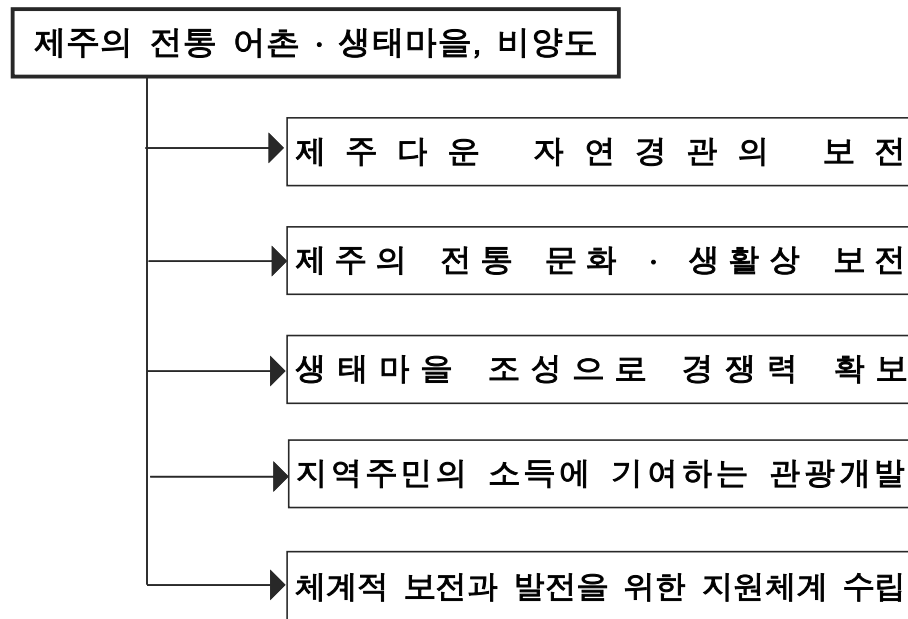
- 지역주민의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과 자본적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표 3-1> 비양도의 SWOT 분석행렬표

		강 점	약 점
		• 화산섬 제주의 특징 보전 • 제주전통 생활문화 보전 • 자연·생태환경 자원 풍부 • 청정한 자연환경 • 상대적으로 적은 인공시설	• 도항선 이용 불편 • 고령화 추세 심화 • 관광시설·프로그램부족으로 주민소득에 도움 되지 않는 관광객 증가 • 자연과 부조화된 시설 • 해안 쓰레기 처리 미흡
외부환경	기회	• 생태·문화중심의 대안관광 선호 • 전통경관·문화 선호로 관련 산업의 발전가능성 • 정보화 진전으로 지리적 한계 극복	• 제주다운 자연경관보전 • 제주의 전통문화·생활상 보전 • 생태마을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영위 및 시설 입지 •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하는 관광개발 •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 제주의 전통 어촌·생태마을 비양도
	위협	• 내외부로부터 각종 개발압력 증대 • 외부자원에 의한 대규모 개발로 지역주민의 소외감 증대	

3) 비양도의 발전목표 설정

- 비양도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비양도의 발전목표를 ‘제주의 전통어촌 · 생태마을 비양도’로 설정하여 추진함.¹⁶⁾
- 비양도의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림 3-1>과 같은 목표 체계를 설정함.



[그림 3-1] 비양도의 발전목표

16)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양도의 발전목표 및 목표체계 등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하는 공적 계획이 아니라 바람직한 비양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히 둠.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앞으로 해당기관 및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수립될 때 실효성이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구상안에 불과함.

2. 비양도의 발전방향

1) 비양도의 전통 어촌 · 생태마을, 비양도

- 제주도의 전통적인 어촌은 포구와 원담 등을 구성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제주도의 독특한 경관을 구성하고 있었음.
- 새마을 운동이후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포구들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 원담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 또한 쉽게 찾을 수 없는 기억 속의 자원으로 사라지고 있음.
- 어촌에서의 생활상은 남성들의 경우 어선을 이용한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며, 여성들의 경우 잠수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음. 특히, 잠수업의 경우 잠수업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고령화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북제주군뿐만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 전통적인 어촌 모습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따라서, 제주의 전통어촌의 경관을 보전하고, 잠수업 등 고유의 어촌 생활상을 보전하기 위한 (가칭) ‘제주의 전통어촌 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태마을은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그린투어리즘’ 사업,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 관광마을 조성계획’ 등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이 자연 생태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등이 생태적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리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생태적 환경을 보전하는데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현재 비양도의 경우 화물차 1대, 경운기 1대만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의 일상생활도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학자

들이 정의하는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양도의 자연환경 또한 제주 화산섬의 특징을 잘 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전무하며, 비양봉을 비롯한 주변환경 전체가 제주의 전통경관과 생태환경을 가장 잘 보전하고 있는 지역의 하나임.
-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그린투어리즘 조성사업’, 어촌관광마을 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북제주군 또는 제주도 차원의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비양도를 체계적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2) 제주다운 자연경관의 보전

- 비양봉을 비롯하여 화산섬 제주의 특징을 잘 보전하고 있는 지역임. 비양봉 능선에서부터 이어지는 띠와 억새군락, 해안선, 돌담으로 둘러싸인 주택 등은 제주도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다운 요소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임. 따라서 비양도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가칭) 비양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도의 유인도중 우도와 남제주군 마라도의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섬 자체가 지닌 고유한 정체성이 훼손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양도의 자연경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 비양도의 자연경관 보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비양봉이라 할 수 있음. 현재, 비양봉에는 정상에 비양도 무인등대가 있으며, 비양봉의 식생군락을 들 수 있음.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나무 군락의 증식, 남측 분화구 남사면의 소나무 고사 문제, 정상 등대주변의 토사 유출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비양도의 식생에 대해서도 자연의 천이과정에 의존할 것인지? 비양도의

이상적인 모형을 설정하고, 그 모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후자를 선택할 경우 비양봉을 비롯한 비양도에 분포하는 수목에 대한 관리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해안경관의 보전과 관련하여 비양봉 일주도로가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 항공사진 또는 비양봉 정상에서 바라볼 때 빛의 반사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과 이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선주와 전선들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지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 주택들도 초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상적인 주거경관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주택을 신축 또는 정비하는 경우 생태마을로 육성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가급적 자연재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비양도 전체를 보전한다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비양도 포구의 경우 자연석 방파제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있는데, 외관상 제주 자연석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양도에는 2개의 원담이 있었는데, 현재 그 자취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원상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양도의 자연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공간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여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시설을 배치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함.
-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의 편의성과 안정성 및 생태성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활동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함.
- 비양리 마을의 생활 및 어업공간/ 생태체험 공간/ 비양리의 역사·문화공간으로 공간구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획함.
- 이상의 경관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제주 고유의 어촌 모습의

재현으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매력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제주 어촌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 제작 등의 촬영지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사료됨.

- 비양도를 지속가능한 관광, 즉 현세대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차세대에 보다 고품질 관광을 연출하기 위해 비양도 자연경관 및 환경정비가 필요하므로, 한림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양도 500년 보전계획’이라는 초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3) 제주의 전통 문화 · 생활상 보전

- 비양도의 경우 제주의 전통적인 문화나 생활상에 대한 보전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남아 있음.
-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상이 제주 고유의 어촌 모습을 잘 보전하고 있으며, 어촌 생활 및 전통신앙과 관련된 마을제, 포제단에서의 포제, 영등굿, 신당, 당제 등을 지내 왔으나 최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비양리 마을의 역사 · 문화를 주제로 하는 마을 단위의 축제를 개발하고,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충분한 보도폭과 안내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을 도입함.
- 제주 지역의 전통문화나 전통신앙과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재현되고 있으나, 주민의 일상과 연관된 곳에서 제주의 전통적인 환경 분위기가 남아 있는 곳에서의 보전 대책이 필요하므로 비양도를 (가칭) ‘제주의 전통 문화 · 생활상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생태마을 조성으로 경쟁력 확보

- 비양도 전체를 생태마을로 조성하여 대안 관광지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비양도에는 제조업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화물차 1대와 경운기 1대만 있을 뿐 자동차가 없는 마을이며, 지역주민의 삶 또한 생태적 삶을 영위하고 있음. 아울러 비양도에서는 동력을 이용한 차량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함.
- 아울러 앞서 언급했던 초장기 비양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을 생태건축으로 계획하고, 에너지, 용수이용, 폐기물 처리 등도 생태마을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함.
- 결국, 생태마을에 거주하는 비양도 주민의 생활양식이 생태마을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생태마을 지정과 관련하여 ‘생태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태마을 안내자를 양성함.¹⁷⁾
- 생태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마을 주민의식이 결집될 경우 외부로 구입하는 생필품 구입, 주·부식 재료의 구입 등을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1차적으로 생태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생태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생태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 관광객 등 도내 학생을 비롯하여 일반 방문객을 위한 생태마을 방문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비양도를 체계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함.

17) 영국 북쪽 모레이만에 있는 스코틀랜드 핀드혼(Findhorn) 마을에서는 핀드혼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음. 이 마을은 1962년 11월 피터, 에일린 캐디 부부, 이들의 자녀 4명 등 총 6명이 식막한 이곳 모래밭에 정착하여 황무지를 개척하면서 시작되었음. 이곳은 매년 70여개 국에서 매년 1만여명이 방문하고 있음. 핀드혼에서는 공동체 생활 체험과 내면세계에 관한 내용 등 7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여개 국가에서 방문한 4,000여명이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모든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음.

- 생태마을 프로그램 및 생태마을 탐방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경우 이를 유료화하여 제주도 차원의 생태마을 프로그램으로 육성함.
- 생태마을 프로그램의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비양도의 환경용량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방문객 수를 제한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품질 관광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현재 비양도의 생태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음.
 - 비양리 필랑연못의 철새도래지, 지질학적 학술가치가 높은 화산지형
 - 지질 학습체험코스, 비양나무 군락지, 연안 해안 등을 연계한 생태 체험공간을 형성하여 자연생태계에 대한 교육,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형성함.
 - 탐조를 위해 철새도래지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관찰대나 휴게시설을 정비하여 탐조활동과 더불어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현재 필랑연못 일대는 사람들의 이동시 조류가 날아가 버리므로 수목 등을 이용하여 조류의 서식환경을 방해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함.
 - 야간의 오징어 낚기 체험, 통발을 이용한 문어잡기 체험, 미역이나 전복 등 해산물 채취체험 등 바다에서 어업체험을 통해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비양리 마을의 어장 중 일부를 구획하여 유료낚시터의 지정(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낚시 등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마을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함.
 - 지정낚시터를 계획함으로써 기존의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및 수질의 보호와 어업자 및 낚시인 등 유어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

5)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하는 관광개발

- 연간 2만여명이 비양도를 찾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소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쓰레기 등을 투기함으로써 마을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현재, 비양도의 여건 및 관광기반 시설을 고려할 때 1박 이상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관광객이 체류하더라도 민박을 운영하는 일부 주민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 지역주민 전체의 소득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장기적 관점에서는 비양도를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생태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할 경우 비양도 주민 공동체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단기적 관점에서는 비양도를 우도와 추자도의 경우처럼 해상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입도비를 비양도의 천혜의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마을 육성 비용 등으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새로운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수중전망대 등 대규모 관광시설의 설치 등도 고려할 수 있지만,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작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음. 따라서 비양도에서 1차적으로 비양도의 고유 경관과 자연보전, 생태마을 지정 취지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인위적인 관광시설의 설치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 모형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아울러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공동으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니면 현세대보다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6) 체계적 보전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수립

- 비양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제주군 또는 제주도 차원에서 접근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공적차원의 (가칭) ‘비양도 종합발전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가칭 ‘비양도 종합발전계획’에는 비양도의 발전 이념, 발전 목표 등을 명확히 설정한 후, 제주를 대표하는 비양도 다운 자연경관의 보전, 제주의 전통 문화 · 생활상 보전, 생태마을 조성으로 마을의 경쟁력 확보 방안, 자연화 조화로운 생활 영위 및 시설 입지, 지역주민의 소극에 기여하는 관광개발,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등 종합계획적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마을단위 발전계획의 경우 단기 3년 중기 5년, 최장기 계획이라 하더라도 10년 정도이지만, 비양도의 경우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5년에서 100년 이상, 특히 전통 자연 경관의 보전을 위해서는 기존 주거지역 및 주택의 신축 · 재건축시 바람직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장기간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칭 ‘비양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임.

IV.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제주다운 경관, 제주다운 문화와 전통, 제주다운 삶의 모습 등을 영원히 간직하는 마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음.
- 제주의 중산간, 해안 등 어느 곳을 가더라도 현대식 건물에, 전주와 전선주가 시계를 가리고, 자동차의 매연과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을 찾기 쉽지 않음. 예를 들면, 제주어촌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촬영하려 하더라도 시멘트 포장에 전혀 없는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포구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임.
- 비양도는 화산섬 제주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섬, 삼다삼무의 전통이 살아있는 섬, 제주형 생태관광을 실현하는 섬으로 판단하여, 비양도의 원풍경을 설정하고 그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연구자의 희망을 제시한 것임.
- 일촌일품 마을가꾸기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운동일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비양도 주민 스스로 마을의 발전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결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비양도의 발전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비양도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북제주군 또는 제주도 전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본고에서는 비양도의 발전 목표를 제주의 전통 어촌 · 생태마을로 설정하여 제주다운 경관의 보전, 제주의 전통 문화 · 생활상 보전, 생태마을 조성으로 비양도의 경쟁력 확보,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하는 관광개발, 체계적 발전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체계 수립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비양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공식적인 개발모형은 아님.
- 비양도의 체계적인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칭) 비양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V. 국내 · 외 사례 및 참고 자료

1. 국내사례

1) 강화도 생태학습장

- 강화도 남단 갯벌은 세계자연기금(WWF)과 아시아 습지 보호협약(AWB)에 등록된 세계 주요 습지 중 하나임. 또한 이 지역은 철새번식지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수도권의 생태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 강화도의 생태학습프로그램은 강화도 남단 장화리에 위치한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중심으로 운영됨. 수련원은 1997년 장화초등학교가 폐교되자 인천교육청에서 해양수련원으로 개조한 것으로, 교육청에서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함.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인천강화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갯벌체험 및 생태관찰프로그램을 운영함. 해양환경탐구수련원에서는 갯벌생태교육 이외에도 ‘장화리 성공회 교회’ 및 ‘강화도 시민연대’가 운영하는 갯벌생태관찰 프로그램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강화도 시민연대’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 생태관광가이드로 활용하며, 지역 주민들의 빈집을 민박집으로 개조하여 생태관광객을 수용하고 있음. 생태관광프로그램에는 녹색연합이나 각 지방환경운동연합, 교육청 등에서 조직한 갯벌 생태체험팀 등이 방문객의 대부분을 차지함.

2) 전라남도 함평 생태체험학교

- 전라남도 함평만은 서해안 남부에 위치한 반폐쇄성 내만으로서 입구는 좁고 안이 넓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남서해안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함평만의 길이는 약 17km이고 폭은 최대 약 12km이며, 만의 입구는 약 1.8km로 협소하고, 그 면적은 34,410ha임.
- 생태체험학교는 함평군의 주도하에 운영되며 돌머리 해수욕장과 함평을 방문한 관광객은 모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 친환경 생태체험학교 운영으로 “나비고장 함평에서 친환경 생태체험을”이라는 주제 하에 함평을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의 5개소(나비·곤충 표본전시관, 나비생태관, 친환경 농업체험장, 솟대·장승공원, 생활유물 전시관)를 방문하여 생태교육을 실시함.
-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내 위치한 갯벌 생태체험장은 갯벌의 생성과정과 생태, 기능, 중요성 등에 대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음.
- 갯벌생태체험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갯벌의 정의, 우리나라 갯벌 현황, 갯벌과 관련된 용어, 갯벌 생성요인, 갯벌의 유형, 갯벌의 환경 특성, 갯벌 생태계의 특징 등 갯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함께 갯벌에 들어가서 직접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전라남도 함평군은 돌머리해수욕장의 운영과 갯벌 위에 목도(木道) 설치, 각종 이벤트 개최 등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해외사례

1) 후세에 남길 오구니(小國)의 풍경

○ 오구니 마을의 개요

- 오구니 일본 규슈의 거의 중앙, 구마모토현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동북 부에는 오이타현과 남으로는 오구니 지역과 접하며, 표준고도 300-800m 인 지역에 경지, 산림, 들판이 펼쳐져 있음.
- 산간고랭지대로 기상의 변화가 심하며, 한난의 차가 크고 연간 2000mm 가 넘는 다우지역이며, 오구니 삼나무 산지로 유명함.
- 지역 주민수는 9,000여명으로 1차 산업(농림축산업) 20%, 2차 산업 20%, 기타 관광과 상업 등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오구니의 풍경

- 오구니의 풍경은 많은 방문객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음. 특히 오구니의 심벌인 湧蓋山の 웅장함을 가장 인상적으로 느끼고 있음. 그리고 마을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삼나무 숲도 선인들이 만들어 낸 오구니 다운 풍경이며 이것을 보고 인공림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보는 사람들도 적지 많음.
- 오구니만의 풍경은 「지켜나가는 풍경, 만들어 나가는 풍경」이라는 정신이 깃든 결과이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오구니의 풍경임. 이러한 오구니의 「풍경」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응축된 것으로 오랜 역사와 지역의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결과임.
-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질서 있는 개발을 위한 주민의 마음을 「모두가

생각하고 모두가 만들어 가는 오구니마을 만들기 조례」(1996년10월 시행)에 따라 주민참가를 통하여 제정하였음. 이는 오구니의 풍경을 지키려 하는 마을주민의 명확한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

- 주민의 의사가 끝까지 존중되어 오구니의 풍경이 지켜지는가 하는 여부는 마을주민과 행정의 노력에 달려있음. 또한 개별적 개발규제만이 아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과 바람직한 풍경을 창조해 내는 디자인도 요구됨.

○ 행동1 - 경관가이드라인 제정

• 상황과 시점

① 관광도로로서의 가로망

- 농로의 공용개시는 오구니의 지역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례임. 농로는 농업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광객의 통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농업용도로의 기능보다도 관광도로로서의 성격이 크게 될 것으로 사료됨.
- 농로의 개통은 이제까지 지역주민만이 알고 있었던 도로변의 풍경을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공원도로(Park Way)의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② 경관가이드라인

- 도로변의 자연환경 모두를 지금과 같이 보존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을 보존해야 할 곳과 개발을 진행해 나갈 곳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실행성 있는 대응책임.
- 경관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것이 실용적임.

- 제안

- ① 도로변의 경관가이드라인 제정 : 농로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함.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서쪽 일주도로 연변을 시작으로 경관문제가 발생하는 마을외의 지구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 제정함.
- ② 주민협정 제정 : 경관가이드라인이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주민 자신의 경관에 대한 공통이해, 공통행동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촌락 등을 단위로 하는 지역주민이 제정한 「마을만들기 주민회의」를 만들고, 여기에서의 합의를 근거로 주민의 협력하에서 경관을 지키기 위한 규정을 정한 주민협정을 만들.

- 행동1 - 농촌경관 보존

- 상황과 시점

- ① 직불제도

-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있어 농업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농업소득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함. 오구니는 중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평지의 농촌과 비교하여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며,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경작포기 등도 증가하고 있음.
- 이 사업은 농업을 계승해 가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마을협정을 통한 마을의 경관과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과 연결될 수 있음.

- ② 마을경관에 대한 주민평가

- 마을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마을의 풍경, 건축, 수변모습 등을 새롭게 점검해가면서 무엇을 보전할 것인가, 무엇을 더욱 가꾸어 나갈 것인가, 장래에는 어떤 경관이 바람직한가 등과 같은 협의를 거쳐 주민 공통의 이해를 깊게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주민참가의 워크숍에서는 경작방치농지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농경지의 보전, 전통적 건물보전, 마을뒷산의 관리나 식재, 수변 보전과 친수화, 비오톱의 창출 등 많은 과제가 지적되고 있음.

- 제안

- ① 마을경관 만들기 : 직불제 등을 이용하면서 마을협정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농촌다운 마을경관의 보전과 창출을 추구함. 또한 마을내의 자랑거리와 자원, 시설과 주택, 행사나 이벤트, 농산물 등을 활용하여 각 마을 독자의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함.

2) 일본 시즈오카현(靜岡縣) 아타미시(熱海市) 하쓰시마(初島)의 리조트 호텔 및 어항 건설

○ 초도의 개요

- 관서지방의 동북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167인, 세대수 41, 면적은 41ha의 작은 섬임
- 사가미만(相模灣) 내의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섬으로 태평양에 면하고 있으며,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해안부의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모래 해변은 거의 없고 자갈 혹은 몽돌해변이 있음.
- 민가는 북서측 해변에 근접한 좁은 저지에 밀집해 있음. 그 전면에 어항이 있는데, 어항은 여객선 선착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 하쓰시마(初島)는 인근의 아타미시(熱海市)와 이토시(伊東市)에서 선박으로 25분내에 도달할 수 있어서, 바다낚시와 해양레크리에션을 위해 도시지역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섬에는 주민의 생활에 충분한 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이나 지하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는 해저송수에 의한 수도가 부설되어 물 부

족 문제는 해결되었음.

○ 사업추진 경위

- 하쓰시마(初島)는 일본에 수많은 섬 가운데서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곳이라 할 수 있음. 어업, 밭작물, 민박 등을 기반으로 한 생활수준은 소득 면에서 도시근로자에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초도의 산업이 젊은이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노령화 현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 하쓰시마(初島)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 왔음.
- 과거부터 하쓰시마(初島)는 리조트 개발의 적지로서 평가되고 있어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이 섬 전체를 매입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
- 이러한 제안들은 선조로부터 내려 온 마을을 계속 지켜가기를 원하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실현되지 못했었음.

○ 사업의 주요 내용

- 하쓰시마(初島)개발의 기본방침
 - 하쓰시마(初島) 주민들은 과거 민간기업에 의해 섬 전체를 매입하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지역사회를 지켜낸 경험을 바탕으로 하쓰시마(初島)개발의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섬 주민 특히 젊은 층의 고용을 증대시켜 어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면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섬 주민이 경영에 참여하여 계획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의 민박사업과 경합하지 않아야 하며, 향락적이지 않고, 섬 주민이 자긍심을 느낄만한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어야 함.

- 에도(江戸)시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토지는 절대 팔지 않음.

• 개발주체의 요건

- 개발주체와 경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
-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되 그 대상이 대기업이어서는 안됨. 그 이유는 대기업에 있어서 하쓰시마(初島) 개발사업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의 사업방침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하쓰시마(初島) 개발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함. 하쓰시마(初島) 이외에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라면, 초도의 사업권을 다른 기업에 쉽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임.
- 자본금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는 회사이어야 함. 그 이유는 자본금의 규모가 너무 크면 섬 주민의 출자비율이 제한되어 경영에 있어서 영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임.
- 섬 주민의 대표가 계속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발허가 취득 후에 다른 회사에 권리양도 되는 것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기존의 기업들 중에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를 새로 설립할 필요가 있었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섬 주민의 대표로서 하쓰시마(初島) 어업협동조합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과 함께 임원을 파견하고, 회사설립 후 대표이사는 섬 주민과의 약속대로 하쓰시마(初島) 개발사업에만 전념하기로 약속하였음.

• 개발방향 및 조건

- 하쓰시마(初島) 주민이 합의한 개발방향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주민이 합의한 개발방향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음. 첫째, 회원제에 의한

- 고급리조트 호텔을 건설하고, 섬 주민이 경영하고 있는 민박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음.
- 섬의 환경을 보전하고, 수려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리조트 건설과 함께 섬 주변의 송림을 보전·정비하고 호텔은 꽃과 나무로 둘러싸이게 함.
 - 하쓰시마(初島)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하쓰시마(初島)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호텔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함.
 - 젊은이들을 섬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호텔과 관련 산업에 초도주민과 그 가족을 적극적으로 고용함.
 - 토지는 절대 팔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키기 위해 호텔과 정원, 그리고 각종 시설을 위한 토지는 하쓰시마(初島) 주민으로부터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함.
 - 이러한 조건에 따라 호텔건설에 앞서서 송충이의 방제와 잡초제거, 오랜 세월에 걸쳐 퇴적된 쓰레기의 처분 등 환경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음.
- 어항정비
- 호텔의 주고객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므로,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 연락선 이외에 요트나 모터보트의 선착장이 필요했음.
 - 하쓰시마(初島)내에 있던 기존에 어항은 이미 지역 주민의 어선과 연락선의 이용만으로도 포화되어 외래선이나 호텔 투숙객의 유선을 수용할 여유가 없었음.
 - 어항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어항을 건설하기로 하였음. 신규어항은 어선과 호텔 투숙객을 위한 유선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NTT-a형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건설비를 대출받아 건설되었음.
 - 하쓰시마(初島) 리조트 호텔은 새로 건설된 어항시설에 대한 이용 자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쓰시마(初島) 어업협동조합에 준회원으로 가입하

고 어항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였음.

- NTT-a형 사업은 일반 공공사업보다 자금 조달면에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따르므로 대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NTT-a 형 사업으로 완성한 어항은 일반어항과 같은 공공성을 가지므로 호텔의 전용시설은 아니지만, 충분한 접안시설의 확보로 연락선의 결항률을 개선하고 어선과 유선 이용의 상충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음.
- 관광객의 유선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바람이나 파향에 따라 신행과 구항을 적절히 나누어 이용함으로써 어선조합의 안전성도 향상되었음.
- 따라서 신규 어항 건설은 하쓰시마(初島) 주민과 어민, 관광객과 호텔 투숙객 등에게 모두 혜택을 가져다주었음.

○ 사업의 효과

- 하쓰시마(初島) 주민이 주도한 리조트 호텔의 개발은 지역사회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음.
- 하쓰시마(初島)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섬에 정주하는 젊은 층의 인구도 증가하였고, 지역의 활력이 증가하였음.
- 호텔이 소요 자재를 하쓰시마(初島) 어업협동조합에서 구매하고, 하쓰시마(初島)의 어획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어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안정되었음.
- 신규어항의 건설로 보다 안정적인 어업활동이 가능해지고 연락선의 취선률이 개선되었음.
- 민박이나 식당을 경영하는 하쓰시마(初島)주민은 소비자층이 다른 호텔의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음.
- 하쓰시마(初島) 관광개발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가

지고 왔기 때문에 하쓰시마(初島) 주민은 동 사업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시사점

- 하쓰시마(初島)개발의 사례로부터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 주민이 외부 자본은 유치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면서 어업을 비롯한 기존의 지역 산업과 상충 혹은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역 주민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임.
-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사회의 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킴은 물론 지역주민과 개발사업자, 관광객이 모두 혜택을 누리는 윈-윈 게임이 가능해졌음.
- 계획수립 단계에서 환경에 대해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일시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편익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에도시대 이전부터 유지해온 하쓰시마(初島) 주민의 결속력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은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3) 노르웨이 로포텐 섬의 어촌관광개발 사례

○ 지역 현황

- 로포텐 군도(Lofoten Islands)는 북극권의 서쪽 해안, 위도 67도에서 68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전체 면적은 1,227m²이며 약 24,5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로포텐 군도는 산과 뾰족한 봉우리, 넓게 트인 바다, 피난처가 될만한 내해, 쪽 펼쳐진 해변과 넓은 미개간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도 내 모든 섬들은 강한 조류로 둘러싸여 있음.

- 로포텐에서는 겨울철 대구잡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월과 4월 사이에는 북 노르웨이의 대부분이 어민들이 로포텐에서 대구어업에 기반을 둔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로포텐의 수산업은 수년간 통제되어 왔지만 어족자원이 다시 풍부해지면서 밝은 미래가 예상되고 있으며, 양식어업도 회복되는 추세임.
- 지난 30년간 급격하게 줄어든 농장에도 불구하고 로포텐의 농업은 아직도 몇몇 지역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로 낙농제품과 육류를 수출하고 있음.
- 로포텐의 거의 모든 산업은 수산업과 관련이 있지만 최근에는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현재 연간 2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로포텐을 방문하고 있음.

○ 사업주체 및 관광자원

• 사업주체

- 로포텐 군도의 관광사업 주체는 로포텐 관광회사(Lofoten Tourist Enterprises AS)임.
- 이 회사는 로포텐의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컨설팅 서비스, 로포텐 섬의 사진판매, 인터넷상의 웹페이지 제작 및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관광자원

- 로포텐 관광은 다음과 같은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음.
- 유람선 및 바다 소용돌이 체험 :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바다 소용돌이(Moskstraumen)를 체험할 수 있음. 이 바다소용돌이는 2,000년 전쯤에 그리스의 역사가인 피테우스에 의해 처음 묘사되었으며, 그후로 수많은 바다지도에서 무시무시한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경고의 대상이 되었음. 바다소용돌이 주변에는 어장이 풍부하며 이곳에서는 독수리, 가

- 마우치, 바다표범 그리고 심지어 고래도 볼 수 있음.
- 어선에서의 일일어부 체험 : 로포텐의 어부들은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안내 해주며 그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함. 수확은 거의 확실히 보장되며, 전통 노르웨이 어선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어획하는 프로그램과 어선에서의 손줄낚시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원시 동굴벽화 관람 : 깊이 115m, 높이 50m의 랩스비쿨라(Refsvikhula) 동굴에는 3,000년 전에 그려진 벽화를 감상할 수 있음.
 - 산악등반 : 로포텐에는 등산로와 산책로가 잘 개발되어 있으며, 산에는 숙박이 가능한 산장이 있음. 겨울에는 축제와 더불어 스키를 즐길 수 있음.
 - 박물관 관람 : 로포텐에는 소규모이지만 4개의 특색있는 박물관이 있음. 인형 및 장난감 박물관, 건어(乾魚) 박물관, 어촌박물관, 어업박물관이 그것으로, 인형 및 장난감 박물관을 제외하면 모두 어업과 관련된 것임. 건어 박물관은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라 하며, 여기에서는 대구의 가공과정을 보고, 건어를 직접 맛볼 수 있음. 어촌 박물관에서는 로포텐의 200년에 걸친 수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며, 로포텐 어촌의 전통가옥인 Rorbu Cabin에서의 생활상을 보여줌. 어업 박물관에서는 어선과 어업에 관련된 장비들과 함께 로포텐의 전통 수공예품을 감상하거나 살 수 있음.
 - 전통가옥을 이용한 숙박시설 및 다양한 바다음식 요리 : 로포텐 어촌의 전통가옥인 Rorbu Cabin을 재현한 숙박시설이 해변에 조성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어민들의 전통적 생활을 체험할 수 있음. 또 다양한 바다음식을 즐길 수 있는 많은 레스토랑이 영업하고 있음.

○ 시사점

- 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한 주체로서 회사를 설립한 것은 일본 초도의 사례와 같음.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이 한 마을의 관광개발을 위해 기업을 설립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로포텐 어촌관광개발의 특징은 우수한 자연자원의 활용과 함께 어촌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문자원을 개발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임. 지역의 전통가옥인 Rorbu Cabin, 4개의 소규모 박물관, 어업 체험프로그램, 바다음식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함.

3. 참고 자료

공동체와 생태마을

○ 개념과 의의

• 공동체

- 공동체의 ① 정체성(Identity), ②상호작용(Interaction), ③ 연계성(Linkage)으로 설명할 수 있음.
- 공동체란 그 구성원들이 동일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에 기초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사회공간적 상호작용하면서 활동의 (긍정적 및 부정적) 결과들에 대한 공동의 분담을 전제로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음.
- 공동체 원리는 주민들의 향토애, 공통육구 충족, 주민입장 존중, 상호우호적 관계, 주민조직의 활성화, 정부당국에 의한 실질적 의사결정, 협조 등의 형태로 표면화됨

• 생태마을

- 자연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질 높은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를 의미함.
- 단순하고 소박한 삶으로 지속가능한 사회환경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간의 활동을 자연환경과 해롭지 않게 통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인간척도(human-scale)의 정주를 말함. 즉, 생활 및 생산양식이 주변 자연생태계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자립되는 지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사회단

위를 말함.

- 주민들의 주체적인 삶의 장소로서 생활양식, 생산양식이 주변 자연생태계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 저소비가 이루어지며 지역이 역사, 문화적으로 정체성이 있는 공동체를 말함.
- 주거지는 생활, 생산 공동체로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자연친화적이며 환경보전적인 생활공간이며, 주민 스스로가 자원절약, 자원순환, 저소비의 생태적인 생활을 실천하며, 의사교환, 의사수렴, 주민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 공동체를 말함.
- 마을의 자연 생태적 원리와 고유한 마을 전통양식을 재해석하고 응용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생산 활동 속에서 생태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마을임.
- 마을의 공간구조와 생태계, 그리고 마을내의 건물과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으며 마을주민들의 생산방식이나 생활양식까지도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을 의미함.

○ 생태마을 조성 유형별 특성과 사례

• 조성방식에 따른 분류

- 계획적 생태마을 조성 방식 : 입주자들을 주체적으로 생태공동체로 형성하여 계획적인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팜 생태마을, 영국 펀돈 생태마을, 호주 크리스털 워터즈생태마을, 경남 산청 간디마을, 덴마크 뭉케소가드 등이 해당됨.
- 기존마을의 생태마을화 조성 방식 : 기존마을 주민들이 삶의 방식을 생태적으로 개선으로 마을공동체가 생태마을로 전환하는 조성방식으로, 충남 홍성 둔당리,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강원도 화천군 용호리, 일본 군마현 천장촌(가와바) 등이 해당됨.
- 기존마을+계획적 생태마을 조성 방식 : 기존마을 주변에 신규로 새로

은 계획적인 생태마을을 조성하여 동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조성되는 방식으로, 충남 금산 건천리, 전북 무주 진도리 귀농마을 등이 해당됨.

- 생산방식에 따른 분류

- 마을내부 자급자족 방식 : 마을내부에서 농업,임업,마을공동생산 등을 자급자족하는 생산방식으로, 미국의 팜 생태마을, 영국 핀돈 생태마을, 전북 무주군 진도리 귀농마을, 충남 홍성군홍동면 문당리, 전라남도 남원군 실상사 등이 해당됨.
- 마을외부 의존 방식 : 주로 마을외부의 다양한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거주지는 생태마을에서 거주하는 형태로, 호주 크리스털워터즈 생태마을, 경남 산청군 간디생태마을 등이 해당됨
- 마을내외부 혼합 방식 : 마을내외부에서 생산기반을 갖는 거주자가 혼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통산 농업에서부터 엔지니어까지 다양한 생산활동을 갖춘 방식으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강원도 화천군 용호리 등이 해당됨.

- 기능에 따른 분류

- 환경보전형 : 현대의 제반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지역은 자연순환체계와 환경적 인식을 통해 새로운 대안문화를 창출해야 함.
- 전통문화와의 공생형 : 도시화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고 사라져 버린 우리전통의 아름다움과 지역풍토, 자연복원, 전원을 중심으로 하는 휴식기능, 최소한의 자급자족의 삶의 문화추구 등을 추구함.
- 다기능 복합형 : 생태적 측면 또는 사회적 측면만이 강조되는 지역사회가 아니라 복합적인 삶의 터전으로서 다기능적 요소들이 포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형태로, 자연과괴적인 메카니즘, 획일화 집중화되

는 기능체계에서 인간과 소자연 중심의 공생가능한 체계, 식량자급, 삼림 등 자연환경회복, 레크리에이션기능, 건강한 물순환체계형성 등 합리적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된 생태마을임.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김태운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 박원배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병곤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관오 / 제주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천혜의 경관과 자원을 보전 · 활용하는 전통 어촌 · 생태마을 비양도의 발전 방향

인쇄일/ 2004.12

발행일/ 2004.12

발행인/ 고부언(제주발전연구원장)

발행처/ 제주발전연구원

690-732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Tel. 064-751-2166~7, Fax. 064-751-2168

E-mail: jdi507@provin.jeju.kr

인쇄처/

ISBN 89-88021-77-0 933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 전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